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평창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5. 17.(수)	담당부서	산업인력과
담당과장	박영삼 과장(044-203-4220)	담 당 자	신유철 사무관(044-203-4225) 서혜정 주무관(044-203-4226)

신산업 일자리, 전문 기술인력 중심으로 재편된다

- 산업부, 「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」 개최 -
-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비중, 현재 40%에서 향후 50%로 증가 전망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5. 17일(수) **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**하기 위한 **산·학·연 전문가 간담회**를 개최함

○ 금번 회의에서는 ①**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망**과, ②**신산업 투자기업**의 일자리 관련 **성공사례 및 애로사항**을 중점 논의함

<신산업 일자리 창출 간담회 개요 >

- **(일시·장소)** 5.17(水) 15:00~16:30, 한국기술센터 21층 중회의실
- **(참석자)** 산업부 **강성천** 산업정책실장(주재), **신산업 투자기업**(4), KAIST **이수영** 교수, 한양대 **이상욱** 교수, 산업연구원 **이진면** 본부장, 직업능력개발원 **전재식** 연구위원, 산업기술진흥원 **변동철** 산학협력단장 등 10여명

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

□ **(신산업 일자리 전망)** **산업연구원**은 산업부가 작년 12월 선정·발표한 **12대 신산업***에서 **2025년까지 38만개의 일자리**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함

* ①전기·자율차, ②스마트선박, ③IoT가전, ④로봇, ⑤바이오헬스, ⑥항공·드론, ⑦프리미엄 소비재, ⑧에너지신산업, ⑨신소재, ⑩AR·VR, ⑪차세대디스플레이, ⑫차세대반도체

○ 12대 신산업 종사자 수는 2015년 20.3만명에서 2020년 36.2만명, **2025년 58.5만명**으로 **연평균 11.2% 이상 증가**할 전망임

< 12대 신산업 인력수요 전망 >

(단위 : 천명)

구분	주력산업 유망분야							유망신산업					합계
	미래형 자동차	친환경 선박	첨단 신소재	OLED	시스템 반도체	IoT 가전	로봇	에너지 신산업	고급 소비재	바이오 헬스	항공 드론	AR /VR	
'15년	7.5	1.0	16.3	11.9	24.9	26.8	16.6	13.6	74.2	6.6	0.4	2.8	202.7
'25년	52.8	12.0	31.2	19.4	53.1	45.3	83.9	67.8	136.5	33.9	3.5	45.4	**584.8**

○ 특히, 전체 종사자 중에서 연구개발·품질검증·생산기술 등 전문성을 보유한 **'산업기술인력'의 일자리 비중***이 **2015년 40% 수준에서 2025년 50% 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것**으로 예측함

* ('15년) 79,599명(39.3%) → ('25년) 282,589명(48.3%)
** 산업기술인력 :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, 사업체에서 연구개발,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업무관련 관리자 등으로 근무하는 인력

-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, **산업구조 변화 및 신기술 발전**에 따라 사무직·서비스직 등 지원인력보다는 **전문성을 갖춘 고급 기술인력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**됨을 의미함

○ 또한,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**신기술이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게 변화**하고 있어, 향후 **신산업 분야 연구개발·설계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아질 것**으로 전망됨

* 산업기술인력 내 비중 1위 : (현재) 생산기술직 → ('25년) 연구개발·설계인력

□ **(업계 의견)** 회의에 참석한 빅데이터, 원격의료, 자율주행차 등 **신산업 투자기업** 대표들은 새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(81만개)과 함께, **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중요**하다고 강조함

○ 특히,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**12대 신산업**에서 대다수 일자리(38만개)가 **창출**될 전망인바, **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**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**'일자리위원회'**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

- 구체적으로는 ①**역량있는 전문인력 양성**, ②다른 산업으로부터의 **유연한 인력이동 지원**, ③**법·제도** 등 인프라 확충, ④정부와 연구기관의 **새로운 기술개발**(R&D) **지원** 등을 요청함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5-17 11:19:11

향후 계획

□ 회의를 주재한 **강성천 산업정책실장**은 **규제개선과 집중지원***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**12대 신산업**을 중심으로 **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유발형 신규투자를 유도**하는 한편,

* R&D 자금 집중지원(5년간 7조원), 네거티브 방식 규제완화, 세제지원 등

○ **산업계 수요에 부합**하는 **실무 중심의 산업인력 교육·양성 사업***도 **지속 확대**할 계획이라고 밝힘

*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, 에너지인력양성사업,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사업 등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신유철 사무관(☎ 044-203-4225), 서혜정 주무관(☎ 42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참석자 명단

구분	성명	소속	직위	비고
産 (4)	전진옥	비트컴퓨터	대표	ICT융합교육
	권순성	일마일	대표	미래형 자동차
	송세경	퓨처로봇	대표	로봇
	김종호	우진엔텍	연구소장	바이오·헬스케어
學 (2)	이수영	카이스트	전기전자공학과 교수	AI, 로봇
	이상욱	한양대학교	철학과 교수	과학기술 정책
硏 (4)	이진면	산업연구원	본부장	미래 인력수요 전망
	김재진	산업연구원	전문연구위원	미래 인력수요 전망
	전재식	직업능력개발원	연구위원	인력수급 통계
	변동철	산업기술진흥원	산학협력단장	산업인력양성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5-17 11:19:11